



“마루노동자 등 취약근로자들과의 소통 강화가 이중구조 해소의 시작”

김문수 위원장, 5.2.(목) 마루노동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맨 왼쪽부터) 한석호 전태일재단 前 사무총장, 이재숙 한국마루노조 기획국장, 최우영 한국마루노조 위원장 및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담당자가 간담회 개최 기념촬영을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5월 2일,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마루노동조합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일보 기획기사*를 계기로 마루노동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마루노동 관련 주요 현안을 알아보고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창호·도배처럼... 마루공사도 노임단가 정해 급여 줘야(조선일보, '24.3.12)

간담회에는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한국마루노동조합 최우영 위원장, 이재숙 기획국장,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건설현장의 마루시공 노동 환경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시중노임단가 조사직종에 마루시공 적용 및 검토, 마루시공 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화장실 설치 확대 등

이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중노임단가 지정을 위해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의 편의시설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와 근로자 보호방안, 임금체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취약근로자들과의 소통 강화가 이중구조 해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동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신정민 전문위원 

“한국을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소재지로”

경사노위, 4.29.(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정책간담회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윤영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램지 투바시 에이아 이지 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전유미 퍼솔켈리 코리아 대표이사, 알버트 김 한국 MSD 대표이사가 정책간담회 개최 기념촬영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이하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James Kim) 회의실에서 임원진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암참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기업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을 목도하고 있으며, 기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각종 규제들을 글

로벌 표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면 한국이 한층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은 “경쟁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생산시설 유치 등에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노동규제와 관련해 암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국은 근로시간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연장 등 노동 규제에 관한 노사정 대화를 본

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 노사관계 리스크를 완화하고,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아태 지역본부(APAC RHQ) 소재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후 간담에서는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 노사관계 진단과 규제 개선방안 ▲한국의 아태지역 거점 유치 위한 방안 ▲양 기관 향후 협력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편, 경사노위는 앞으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한국의 아태지역 거



▲ 김문수 위원장과 제임스 김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점 유치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담당 손옥이 전문위원 [ESC](#)

“노사정은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 대화에 나서야”

김문수 위원장, 4.29.(월) 문화정책 포럼 참석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첫줄 맨 왼쪽부터)권순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맨 왼쪽부터)이성희 고용부 차관, 한석호 전태일재단 前 사무총장, 김덕호(맨 오른쪽)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동근(오른쪽 두 번째) 경총 부회장 등 '문화정책포럼-2024 노동개혁'에 참석한 외빈과 패널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노사정은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하고, 새로운 국회도 저성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김문수 위원장은 문화일보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4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화정책포럼-2024 노동개혁'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지난 세계기 동안 노사정 힘을 합쳐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지금 우리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 김문수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며,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노동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30년 가까이 지속돼 온 사회적 대화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대화의 혁신 방법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노동시장의 다층 갈등을 풀 수 있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 개발과 이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특히 취약노동자의 대표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대화에 전체 근로자 중 86%에 달하는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전체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책무도 그만큼 크다”



▲ 김덕호 상임위원이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 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이재열 서울대 교수, 한석호 전 전태 일재단 사무총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김덕호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담당 이세종 전문위원 **eslc**

“대화하는 노사문화 확산을 기대”

김문수 위원장, 4.30.(화) 제36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참석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영범(첫줄 왼쪽 첫 번째)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손경식(〃 세 번째) 경총 회장, 김동명(〃 네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6회 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장기 침체시기에 노사가 서로 대화로 협력해야만 기업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와 기업이 성장해야만 노동자의 삶도 좋아지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며, “시상식을 계기로 대화하는 노사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담당 이현욱 전문위원 **eslc**